

# 중고책 판매하는 아마존에 집단 항의하는 미국 작가들

신간 판매율 하락으로 인세소득 떨어질까 우려해

표정훈 | 출판칼럼니스트



제프리 P. 베조스 아마존 회장(왼쪽)과 레티 코틴 포그레빈 작가조합 회장.

미국에는 저서를 출간한 작가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직능 단체로, 90년 역사를 자랑하는 작가조합(Authors Guild, 회장 레티 코틴 포그레빈)이 있다. 현재 8천여명의 작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미국 작가연맹(Authors League of America)이 상급 단체다. 저작권 계약 조건, 인세 문제, 표현의 자유 문제, 세금 문제 등에서 작가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익 보호 및 신장을 꾀하는 전형적인 이익 단체이기도 하다. 자체 법률 자문단을 통해 회원이 겪는 저작권 계약 관련 분쟁에 개입하기도 하고, 작가의 사회적 위상이나 역할과 관련된 세미나도 개최하며,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회원들이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 작가 홈페이지에서 아마존 링크 삭제해

이 작가조합이 4월 초부터 대표적인 인터넷 서점 아마존과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사태의 발단은 아마존이 2000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고 도서 매매 서비스. 아마존측은 신간 웹페이지에 신간보다 가격이 싼 같은 책의 중고 도서 판매 웹페이지를 링크시켜놓았다. 때문에 신간을 구입하기 위해 해당 웹페이지를 방문했다가 가격이 싼 중고 도서를 구입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한 경우 10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한다.

더구나 고객들이 아마존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중고 도서를 판매할 수도 있다. 아마존측은 중고 도서를 판매하는

서점이나 개인들을 네트워킹으로 묶어, 고객이 중고 도서를 주문, 구입할 수 있게 해놓았다. 그리고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아마존 전체 도서 매출액 가운데 15% 이상이 중고 도서 판매 관련 수익이었다. 신간 도서 판매에 비해 수익률이 8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것이 신간 도서 판매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신간 독자의 발길을 중고 도서로 돌려놓음으로써, 작가들은 인세 수입에서 출판사는 판매 수익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작가조합과 출판협회측의 주장이다. 작가조합측은 첫번째 조치로 회원들 홈페이지에서 아마존 링크를 삭제하고, 독립 서점 네트워크가 운영하는 북센스닷컴(www.booksense.com)에 링크시킬 것을 권고하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사실 많은 작가들이 아마존이나 반즈앤노블 등의 제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작가가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점 배너나 검색창을 마련해놓고, 방문자들이 그것을 통해 책을 구입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서점측으로부터 지급받는 프로그램이다. 작가조합측은 소탐대실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제휴 프로그램 계약도 해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마존을 링크시켜놓은 약 70만에 달하는 웹사이트 가운데 50만곳이 제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아마존 대변인 패티 스미드는 작가와

출판사측의 우려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중고 도서 매매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좀더 많은 작가와 다양한 장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작가와 출판사측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작가조합측은 아마존에서 신간을 구입해 읽은 독자가 그 책을 아마존을 통해 다른 고객에게 파는 일이 일반화된다면, 아마존은 이중으로 수익을 올리게 되고 작가나 출판사는 문자 그대로 '손가락만 빼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 출판 산업 전반에 악영향 미칠 것 우려해

현재 작가조합과 미국 출판협회는 회장 명의의 공개 서한을 아마존 회장 제프리 P. 베조스에게 보내놓은 상태다. 아마존의 행태가 작가의 인세 수입과 출판사의 이익을 감소시켜 출판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베조스 회장 본인 혹은 책임 있는 담당자가 작가회의 및 출판협회측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는 것이 공개 서한의 요지다. 한편 베조스 회장은 자사의 중고 도서 판매 서비스가 작가와 출판사측에 손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놓았다.

작가조합측의 가장 큰 고민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동원할 수 있는 압박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작가조합의 실행이사 폴 에이컨은 법적으로는 작가들이 중고 도서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중고 도서 판매는 저작권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것.

“작가, 출판사, 독자, 아마존 이렇게 모두가 결국 출판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공개 서한의 문구가 큰 여운을 남긴다. 미국 출판계의 여러 주체들이 이번 사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출판계의 여러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본 경험이 드문 우리로서도 그 귀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